

도내 창업 생태계 조성 · 기업지원 앞장

전북자치도-의회-국민연금공단-우리금융그룹, 협약 체결... 11개 사업 상호협력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는 지난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전북자치도의회),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 우리금융그룹(이하 우리금융)과 전북 기업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전북자치도청에서 국주영은 도의장,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만나 전북 지역 창업 생태계 구축, 지역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 맞춤형 사회 공헌 활동 추진 등의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으로 전북자치도는 '창업생태계 조성'과 '기업 지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상호 간 다양한 분야의 각종 자원과 정보, 기술적 노하우를 공유하며 협약기관 간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4개 기관의 협약 주요 내용은 △기관별 보유 빅데이터 활용 국민연금



지난 17일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자치도-전북자치도의회-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전북창업생태계 혁신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국주영은 도의장,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협력 업무협약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카드 리뉴얼 협업 △사회적 경제 기업 공동 지원을 통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실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리금융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디노랩) 설치·운영 및 베트남 진출 예정기업 공동 지원 △도민 대상 금융교육 등을 함께 협력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전북자치도와 우리금융은 △전북자치도 소재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우리금융 생명의 숲 연계 전환 지원 △우리금융 생명의 숲 연계 전북자치도 내 학교 숲 조성 △전북자치도 주관 지역 인프라·프로젝트 사업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우리금융과 함께 '협력형 디노랩'을 운영할 계획이다. 디노랩은 스타트업 발굴에 사무공간과 경영 자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전북자치도 금융벤처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해 핀테크 기업의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금융이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 중 처음으로 도의회,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 다자간 협력사업"이라며 "우리금융은 협약기관과 함께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해 도 발전에 큰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민·관·공이 상호협력하여 ESG 경영을 실천하는 모범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주영은 도의장은 "이번 협약은 건 강한 창업기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동력을 창출하는 출발선"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국민연금공인과 우리금융그룹의 오랜 역사와 신뢰를 바탕으로 전북의 창업생태계 및 기업 지원을 함께 이끌어 가는 동반자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협약은 전북의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며 일자리 창출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화답했다. /이만호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이 18일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고자 바이바이 플라스틱(ByeBye Plastic, BBP) 챌린지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참여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 환경보호 캠페인 동참에 앞장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이 18일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고자 '바이바이 플라스틱(ByeBye Plastic, BBP) 챌린지'에 동참했다.

지난해 8월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시작한 '바이바이 플라스틱(ByeBye Plastic, BBP) 챌린지'는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해 일상 생활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범국민 환경보호 캠페인이다.

백종일 은행장은 이해민 핀다 공동대표로부터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전주상공회의소 김정태 회장을 지목했다.

전북은행은 일상 속 물티슈, 플라스틱 빨대 줄이기, 분리배출하기, 1회용품 대신 대화용품 사용하기 등 바이바이 플라스틱(ByeBye Plastic, BBP) 실천 수칙들을 지키며, 다양한 환경보호 캠페인 동참

에 앞장 설 예정이다. 이번 챌린지를 통해 대화용 컵, 텀블러의 적극적인 사용 실천으로 기존 사내 카페에서 사용되는 연간 6만 개의 일회용 컵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백종일 은행장은 이에 앞서 본점 카페 컵 캐리어 Recycle, 에너지의 날 '본점 절전 Day', 환경보호를 위한 '줍깅 Day', '환경그림공포전' 등 다양한 캠페인 참여 및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환경 실현과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백종일 은행장은 "이번 챌린지 참여를 통해 환경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속가능한 녹색 환경 실현과 지구를 지키는 다양한 환경 캠페인 및 ESG경영 실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경진원 금융기관 간담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은 18일 전북 중소기업 육성자금 취급 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금융기관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실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3분기부터 변경되는 주요사항 등에 대해 안내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금관리은행인 전북은행을 비롯해 농협, 국민 기업, 우리 등 시중 주요 금융기관 담당자가 모두 참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려주었으며, 도와 경진원은 도출된 의견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금융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이번 간담회를 기획했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효과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3분기 자금신청부터는 기존 전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이 종료되고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해당 홈페이지에서만 자금신청이 가능하다. /김욱기 기자

바이오진흥원,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염원 한마음 행사 개최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임직원 등 200여명 동참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 원장 바이옴)은 18일, 도내 공공기관 및 기업들과 함께 바이오 특화단지의 전북특별자치도 유치를 한마음 한뜻으로 지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바이오진흥원 임직원을 비롯하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강영재),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임문택), 전북혈액원(원장 강진석),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김상남), 전

주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성) 임직원들과 입주기업 리더(대표 김명자) 등 10개사 약 200여명이 함께 참석하여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염원하는 뜨거운 마음을 한데 모았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18일, 도내 공공기관 및 기업들과 함께 바이오 특화단지의 전북특별자치도 유치를 한마음 한뜻으로 지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삼고 전주-익산 정읍 삼각편대의 풍부한 바이오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현재 그린바이오 중심인 전북 바이오산업을 오가노이드* 분야 및 레드바이오까지 확대하여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바이오진흥원은 지난해 말 사업기획 초기단계부터 함께 참여하고 올해 초 전담팀을 신설하여 바이오 기업 유치 및 인프라 조성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충북과 전략적 동맹을 맺는 등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노력하고 있다. /김욱기 기자

송호석 전북환경청장, 옥정호 찾아 녹조상황 선제대응 주문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18일 임실 옥정호를 방문하여 녹조발생에 따른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녹조 대응을 조류경보발령 수준으로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송 청장은 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 관계자들과 옥정호 내 녹조우심지역

을 둘러보고 "물순환장치의 상시 운영과 더불어 올해 추가로 설치되는 물순환장치와 수면포기기를 6월까지 조기에 설치하고, 수질 모니터링과 오염원 감시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임실군 관계자에게는 "옥정호 상류의 오염물질 차단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인처리를 강화하고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김욱기 기자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설립운영지원단 지도위원 모집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9일부터 7월 2일 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지원단 지도위원(컨설턴트)을 신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설립운영지원단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설화를 도모하기 위해 협동조합 전문가가 조합에 직접 방문해 조합 설립을 비롯한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하는 컨설팅 조직이다.

2024년 모집 규모는 16명 내외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 재직경험자 △세무사·회계사·법무사 등 자격증 보유자 △관련 석·박사 학위 취득자 등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

나 지원할 수 있다. 설립운영지원단 지도위원으로 위촉되면 향후 2년간 △조합 설립 △총회 개회 △세무·회계 △정관 제·개정 등의 분야에서 컨설팅을 수행하게 되며, 2023년도에는 설립운영지원단을 통해 200개 조합을 대상으로 총 520일의 컨설팅이 지원된 바 있다.

설립운영지원단 지도위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마감일자는 7월 2일 오후 6시

/김욱기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